

‘주민 문화공연장’으로 깜짝 변신한 영암시외버스터미널

문화창작소 동행, ‘상상뮤직터미널 프로그램’ 진행

‘이용객 줄어 폐쇄 위기’ 터미널 활성화 방안 모색

영암군은 문화창작소 동행(대표 김정관)이 2일 영암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상상뮤직터미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영암군의 ‘기업멘토링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영암 청년창업물에 소속된 문화창작소 동행이 시외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주민참여 공연 행사이다.

이용객이 줄어 ‘위기의 터미널’로 불리는

지역의 작은 버스정류장을 주민참여로 ‘회의 터미널’로 바꾼다는 취지였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동신대 실용음악과, 동아보건대 미술학과,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의 가요·미술·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졌다.

시외버스터미널 안팎에서는 영암군의 다양한 판매자들이 모여서 벵룩시장을 열었다. 영암군 일자리 카페 등은 각종 체험 부스

를 열고 버스 이용객과 공연 관람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도 제공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버스터미널을 주민 참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의의와 함께 공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있어 숙제를 남겼다.

영암군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문화를 입혀 새롭게 활용하는 첫 시도에 많은 군민이 성원해줬다”면서 “주민참여와 지역시설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좋은 방법을 찾아 군민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 위해 합동점검 실시

해수부·해양경찰·수품원과 합동 단속반 구성



영광군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1일 해수수산부, 해양경찰청,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

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자 불안 증가에 따른 수산물 과잉 구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주요 생산·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 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기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영광군은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주 2회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우려된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수산물 가격 안정과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소통과 화합의 정례조회 개최

신안군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하지 못했던 직원 월례조회를 지난 6월부터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자유의사 발표를 통해 군정 발전 아이디어 도출은 물론 직원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할 기회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9월 정례조회에는 총 4명의 하위직 공무원이 “공무원이 되기 전 과 후”, “책으로 사담으로 북적북적 1004책방”, “한국전쟁 전후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 “정원 조성 성과 및 정원의 필요성”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 직원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군정 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예전에는 군수 훈시 위주로 딱딱하게 진행되고 직원들도 억지로 참여했던 정례조회 시간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 최근에는 대강당의 남은 좌석이 없을 정도로 인기이며, 직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간식도 먹으면서 동료들의 이야기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 가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토지이동정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운영

우편물 이용 결과 통지해 민원 처리일부터 3~5일 소요...신속 정확 확인

무안군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 처리결과와 실시간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한다.

군은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토지이동 민원 처리결과를 이제까지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결과를 통지해 민원 처리일부터 3~5일이 소요되던 것을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민원처리 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문자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이동정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토지이동신청 절차는 매매, 건축물 준공, 한필지 이용토지 합필 등이 발생할 경우 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

면 행정기관(무안군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부 촉탁의 결과를 민원인(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처리에 처리결과를 알릴 수 있어 소요시간이 단축돼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군민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서비스 질 향상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함평군이 지난 4일 2040년 군 기본계획 및 2030년 군 관리계획(재정비)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기존 2030년 군 기본계획을 진단하고 민선 8기 군정방침인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의 정책 변화에 따른 계획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종합계획 등 상

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정부·전남도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제반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을 수립해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 제시하며 기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의 합리적 정비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상위계획이 우리 군 방침 및 주요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군민중심의 소통, 공감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군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군민계획단 운영과 공청회 등을 진행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